

국민 저항 확산·野圈 반대 불구 정부, 美 쇠고기 고시 강행

규탄대회·비난 성명 잇따라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조건 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광주·전남 축산업계와 시민·경제단체 등이 강력 투쟁을 천명하는 등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기사 3·7·10면〉

특히 이날 정부 고시로 4년 반만에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까지 들어올 것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지역 축산농민과 전

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면 수입개방은 무효"라며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시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과천시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약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재개된

다. 특히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의 경우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내 검역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짧게는 하루 만에 검역증이 발급되게 돼 가장 먼저 검역을 마친 쇠고기는 늦어도 6월 3일이면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협약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 위생조건이 담겨 있다. 이 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

의 편도와 소장골,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골·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의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쇠고기 수입관련 장관 고시를 강행하자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원혜영 원내대표 당선자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면담을 취소하고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과 긴급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앞 규탄결의대회를 잇달아 갖고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우선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국민저항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민노당 의원들도 이날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쇠고기 고시 원천무효와 재협상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도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불매운동 등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기원주 전남 광주·전남연맹의장은 "얼마전 합령의 한 축산농민이 '골육적인 미국산 수입쇠고기 전면개방' 소식에 낙담한 나머지 음독자살한 것처럼 이번 전면 개방은 축산농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협상 무효화"를 위해 시·도민 서명작업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청소년 박람회 인파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1만5천여명의 청소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290개의 테마별 부스가 마련된 이번 청소년박람회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된다. > 관련기사 2·8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쇠고기 대책 또 부실

송아지값 보전책 등 현실성 없어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내 축산농가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보 대책'도 함께 제시했으나 시민들과 축산농가들은 미흡한 대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이날 앞으로 송아지 한마리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농가의 손실을 일정부분 매워주고 당초 1조원 정도로 예정됐던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융자규모도 1조5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남배 전남한우협회장은 "정부안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실의 일부분만을 보전해준다고 돼있는데, 전면개방이 이뤄지면 1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65만 원을 보전해줘야 하나, 정부 보전안은 30만원이 상한선이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료 구매자금 융자규모를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려주고 이자율도 3%에서 1%로 크게 낮춘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농업인들은 "지

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사료값이 70% 폭등했다"며 "정부안으로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특별안정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내놓은 축산 지원대책은 지난 정부 정책의 재탕이자, 전면 개방을 호도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전남지역 2천여 축산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 무효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와 축산 농가타격 등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방안으로 검역 대상 샘플을 기존 1%에서 3%로 확대하고 ▲내장·허 등 조직검사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점검 ▲연령 확인 불가 SRM(광우병 위험 부위) 전량반송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검역 대상 샘플 확대, 원산지표시제의 현실화 등이 담보돼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은 전반적으로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카잔 막판 표심잡기 불꽃 대결

광주 U대회 유치 결정 D-1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를 하루(현지시각 기준) 앞두고 광주와 러시아 카잔(Kazan), 스페인 비고(Vigo) 대표단이 FIS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속속 입국,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치의 양보 없는 각축전을 펼쳐온 광주와 카잔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내용 등에 대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관세 분석과 경쟁 도시 정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과 광주시, 유치위, 후원회, 광주지역 구청장,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대표단 120여명은 29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총회가 열리는 31일까지 행사

장인 플라자호텔 주변에서 광주 유치의 당위성과 여건, 인프라 등을 적극 알리나갈 계획이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윤석 경제부시장, 유치위 고위관계자들은 이날 막바지 해외유치 활동을 마치고 브뤼셀에서 대표단과 합류했다.

광주를 비롯한 3개 유치 신청도시시는 30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현지시각) 총회장에 각각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최종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갖는다.

FISU 집행위원회 총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각 오후 5시30분)부터 브뤼셀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다. 총회는 스페인 비고(Vigo)→러시아 카잔(Kazan)→광주 등 3개 유치 신청도시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27명의 집행위원들의 심사와 투표 순으로 진

행된다. 개최 도시 발표는 같은 날 밤 8시(한국시각 6월1일 새벽3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관세는 광주와 카잔이 예측불허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치위 관계자는 "경쟁지 시설과 도시 인프라가 경쟁 도시에 비해 뛰어나고 시민들의 대회 유치에 대한 열망도 높은 만큼 집행위원들도 반드시 광주를 선택해줄 것"이라며 "총회장에 'Gwangju Korea'가 올려퍼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브뤼셀의 낭보'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브뤼셀=윤영기기자 penfoot@



남해안 5개 지자체 여수엑스포 지원 협정

부산시와 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남도, 여수시 등 남해안 5개 지자체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협정을 체결한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안준태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김태호 경남도지사, 전남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은 30일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을 맺은 이들 지자체는 여수세

계박람회 광고·마케팅·홍보 등을 위해 박람회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정 체결식에는 세계박람회기구(BIE)의 장 피에르 라몽 의장, 빈센트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 등 세계박람회기구 측 인사들과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장승우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여수=박만규기자 ykpark@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